

사설

대승정신으로 미래 열자

광복 50년, 그간 우리는 단 한차례의 국민적 차원의 반성도 없이 역사의 격동기 속에 몸을 맡기며 살아왔다. 조선시대의 봉건적 잔재, 일제시대의 비굴성, 반공반일제에서 오는 경직화된 사고, 군사통치의 물신숭배... 등은 전세대의 악폐를 하나도 여과하지 않은 채 계속 새로운 악을 만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우리의 윤리관념은 주로 혈연중심의 마을적인 분위기속에서 길러져 왔다. 공업화·도시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정' 중심의 윤리관, 도덕적 강령은 설득력을 잃었다. 우리는 메마른 정서를 TV 드라마 '정원일기' 정도에서나 달라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엄청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간염이병률, 자동차 사고율, 알코올 소비량, 범죄의 증가율, 낙태율이 세계적이라는 악의 낙인이 찍혔다. 국민 모두 '잘 살아 보세'의 구호에 집단을 맞추어 춤을 추다 보니 한없이 타락의 나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변혁의 시기에는 그것에 어울리는 윤리적 자각이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 불자 자신도 무기력하게 세태의 흐름을 안타깝게 여겨왔을 뿐이다. 심지어는 일부 불교계의 지도자가 권력에 유착하기까지 했다.

역사상 시대의 변혁은 대략 △경제(자원, 에너지) △인구(이동, △과학·기술 등 3가지 이유에서 발생해 왔다. 우리는 현재 이들 3가지 변화요인을 동시에 체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을 했으나 이 부에 어울리는 윤리성이 농촌으로부터 도시의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났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눈부신 정보화 혁명을 몰고 왔다. 그러나 이들 변화에 대한 마음의 대응은 아무것도 없으며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다.

동물은 환경변화에 진화로서 적응한다. 적절한 진화를 할 수 없으면 종은 절멸한다. 인간은 환경변화에 새

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적응한다. 새로운 시대에 변형하는 민족은 어김 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족속들이다.

모든 문화의 기초에는 종교가 있으며, 그것이 국민 민족의 윤리성을 뒷받침한다. 윤리성이 결여된 발전이란 로마의 말기와 같은 타락이다. 한용운 선사는 일제치하에서 전세대의 악폐를 청산하지 못하는 책임이 불자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한국불교유신론」을 썼다. 다가오는 세상을 민감하게 예감하며 민족의 생존을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정보화의 물결은 국제화와 민족화가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어지고 있다. 범인류적 차원에 통용할 수 있는 보편성은 민족 개성을 자각하며 획득해 내는 힘겨운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이다.

A.토인비는 이미 반세기 전에 오늘날의 상황을 예측하여 앞으로의 세계문제는 인류가 하나의 고등종교를 가지므로써 가능할 것을 예측했다. 비록 그는 기독교권의 지식인이기는 했으나 그가 희망을 걸었던 종교는 절대적인 유일신이 아니라 정인류적 상호 의존관계를 중시하는 포용력 많은 불교적인 종교였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민족은 스스로의 원형을 더욱 더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 인류 모두에게 설득력을 지니도록 승화되어야 한다. 인류를 무시하는 과학·기술과 물질적 중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개인만을 위한 배타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적 상황, 즉 증생이 없게된 이유, 보살의 대비의 마음을 갖게된 이유가 한결같이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는 윤리성을 의미하는 데서 발생했다. 불자는 광복 50년의 이 시점에서 지난날의 악폐를 반성하여 다가오는 사회적 환경을 승화시키는 대승적 사명을 지녀야 할 것이다.

열린 마당

외색 불교

홍 파스님

해방후 한국불교계는 비구·대처 분등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승단 일부의 세속화 만연을 비롯 승사에 천문학적 정재가 들어갔다. 결국 이것은 일제시대 한국불교를 왜색화시키려는 일본의 야욕이 극대화됐던 일제시대로 근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창가학회 등 일본불교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많이 침투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과거불로 여기고 소속 종파의 종조를 생불로, 그리고 일본을 종주국으로 신봉케 하는 등 정교와는 거리가 있는 바 궤이 일본불교를 수



김대곤 부장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는 먼저 일부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주체성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해방'이란 주인이 노예들을 풀어놓거나 제3자가 억압받고 있는 노예상황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빛을 되찾았다는 '광복'의 어휘가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이 우리 불교계에서는 과연 없을까.

승용자를 타보면 해외여행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일본여행객에서 사온 교통안전부적



창가학회 등 경계자세를 문화적 예속 극복힘써야

입 신봉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스럽다. 일본은 한국불교가 아직도 근본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어머니의 종교'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오는 10월 제16차 한일불교교류대회가 경주에서 열린다. 한일불교교류대회 초창기에는 일본과의 누적인 감정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동안 서로 교류가 활발해지고 많은 이해가 생겼다.

일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는 물론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이제부터는 무조건 일본을 경원하거나 피해의식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노력해 문화·학술적으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중단협 부회장)

여행객·저소득층에 부적·다도수입 등 반성을

이 심심찮게 눈에 띄고, 일본 사찰과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 사찰의 신행단체가 일본식 다도(茶道)보급에 앞장서는가 하면 일본창가학회 등 일본불교가 직접 침입해 들어오는 현상도 있다.

이에 대해 무조건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냉철히 반성해 보아야겠다. 교통안전부적(실상 이것은 불교보다 일본 신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등에서 우리 불교도 신행에 도움을 주는 약간의 재산성이 있는 액세서리의 개발이 필요함을 실감해야겠다. 그리고 창가학회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을 파고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우리 불교가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거나 심지어 가진 자들을 주 포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소외시키고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뉴스속보부)

일본불교 침투현황

대체로 불교색을 띤 일본종교의 국내 상륙은 문화적 침투와 국내 불교전통의 왜색화, 민족정신의 잠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미 1백년에 가까운 시간속에 일본 종교는 소리없이 바다를 건너와 국내에는 현재 30여 종파가 뿌리를 내리고 1백만명 가량의 신도를 확보한

대신 소식은 국민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더구나 왜색 불교는 국내의 군소종파나 분별력없는 종교인들을 통해 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들어 국내에 상륙해 조직을 갖춘 일본 종교가 법 인구성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은 광복 50주년을 맞는

30여 종파 상륙 의식·전통 왜색화 우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교의식과 신행에 알게 모르게 왜색이 물들어 남불당, 수자령가, 신종부적 등이 낯설지 않은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내에 상륙한 왜색불교는 일련정종, 입정교성회를 비롯 다양하며, 독가스 사태를 일으킨 울진리 교마저 국내에 신자를 확보했

하기도 했다. 이렇듯 왜색불교, 일본종교는 불자와 종교인이 방심하는 틈을 타 집요하게 한국에 뿌리 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불교의 전통과 민족문화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일본종교 경계는 한국 불교계의 새로운 과제라 떠오르고 있다.

시론

눈에 안보인다고 역사 달라지나

— 조선총독부 철거에 부처

서울의 한복판에 한국민을 노려 보는 듯 일제의 상징물이 떡 버티고 있는 모습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증산교의 강증산이 한 말이 생각난다.

"일제가 침략하기 시작하여 벌써 같은 왜놈들이 우리 마당을 쓸고 길을 닦고 철도를 놓아도 우리는 조금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의 체제가 그대로 영속되지 않는다. 영국은 2천년 전부터 외침(外寇)을 받아왔다. 로마의 3백년 전, 그 후 앵글로색슨족과 바이킹의 침략, 마지막 침략이 11세기 노르만의 정복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처절한 역사를 당당하게 받들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강한 민족성을 자랑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에게는 명명 암살 산증은... 등의 불행이 이어지고, 자신의 지역·가문의 번영에만 힘쓰다가 좌절한 것이다. 최근에는 4천여이라는 천문학적인 축재가 거론될 정도이다.

물론, 심리적으로 일제의 잔재는 곳곳에 남아있다. 심지어 그들이 정치 세력화되어 오히려 해방이후의 권력층에 파고들어간 것이다. 30년 전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의 대통령은 "우리는 일제를 말할 시기가 지났다"고까지 무시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가 순수하고 고귀해지는 것일까? 물질적인 대상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일은 어린이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성숙한 국민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장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지렛대로 삼아야 할 과거 최근 <추한 한국인>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출판되었다. 한국인의 이름으로 일본의 한국강점을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간사한 일본인의 수작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여기에는 매국적인 한국인의 그림자가 있다. 이등박문과 이완용의 관계처럼 군사정권당시 한·일의 검은 유착이 이어지고 지금과 지도도 그 구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



김용운 <한양대 명예 교수>

첫째, 왜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지난날 일본의 역사적 발전기기를 제공해준 한국인이 20세기 초에 그토록 쉽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는가에 대한 반성이다. 2천3백년전부터 한국인은 일본에 벼농사, 금속문화를 제공했다(야요이(彌生)혁명), 4, 5세기경에는 일본 고대국가를 건설했고(국가혁명), 6세기에는 불교전파(종교혁명), 8세기 문화혁명, 명치유신의 존왕양이론(조선주자화)... 등 수천년동안이나 한국은 줄곧 일본에 문화를 전파해 왔다.

한·일은 지리적·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으며, 앞으로 두 나라는 협력하여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의면한 한·일의 검은 유착은 한·일의 건전한 관계 수립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건물의 철거보다는 정신적인 일제 잔재의 복식에 힘써야 한다.

지난날 남산의 옛 모습을 되찾자는 명목으로 남산 의인아파트를 폭파했을 때든 비유이 2천8백여 원 이라한다. 이 액수는 교육부가 1년간

마음속 침탐도 허물어야 19세기말, 산업화의 물결이 전세계를 휩쓸 때다. 산업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국민 국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제 왕조는 국민 국가와 정반대인 가문 국가를 고수했고 강한 가문(혈연·지연)의식이 국민 국가의 형성을 방해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민족은 좌절한다' 조선의 망국은 어김없이 이 법칙이 적용된 것이다.

사람대학에 주는 보조금을 웃돈다. 외인 아파트가 무너지는 광경은 한순간의 구경거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불꽃놀이에 박수치는 어린이가 연상된다. 지금도 각지에서 자연을 훼손해 가며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관공에 무엇이 급하다고 그 많은 돈을 써야 했는지 알 수 없다. 총독부 건물의 철거, 박물관의 건축비... 등에 쓰이는 엄청난 예산을 감안한다면 이 돈으로 우리가 해야 할 보다 급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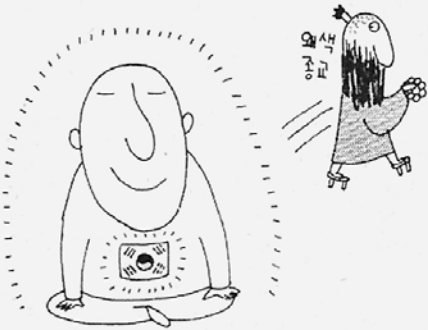
그러한 한국인이 20세기 초 하루아침에 일본제국주주의에 유린당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이유를 묻고 그때의 사회적 병인이 완전히 청산되었는가를 살피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방이후 한국민은 이에 관한 자성이 없었고 오늘날에도 조선시대보다 심한 지역차별, 가문의식이 관을 친다. 특히 국민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의 책임(Noblesse Oblige)이 요청되지만 불행하게도

잠실근방 三田渡에는 청태종(淸太宗)의 공덕을 기린다는 비석이 있다. 오랑캐의 병력에 못겨 조선왕이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어 적의 수령을 당장 취해 달라는 비석이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한국인은 분통을 억누를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 오고 있다. 그것을 없애도 역사는 사실로 남으며 오히려 그때의 굴욕을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다. 이제 그것도 중요한 역사 유물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

광복 50년, 우리가 당장 취해야 할 일은 일제에 당한 이유를 이성적으로 되새기며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현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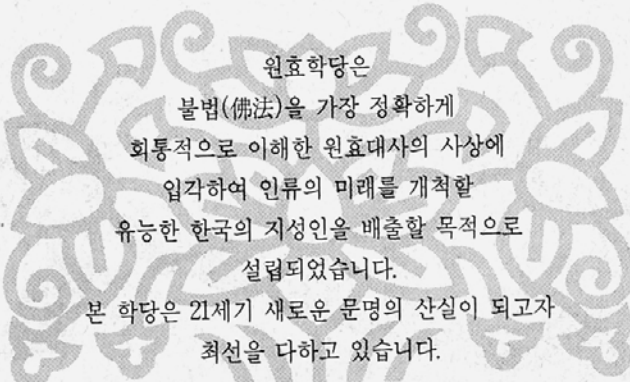
진정한 해방은 마음으로...



진정한 해방은 마음으로...

1995년도 후기과정 원효학당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동장(銅章) 과정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개강 ... 9월 12일
-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 8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사진 2매(3x4)
-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서류전형 / 개별통보
- 문의처 ... 본 학당 사무국 (TEL. 3411-6167~8)



학장:이기영 박사/부학장:정병조 박사

- 이기영 박사의 불교개론, 유마경, 법화경, 임제록, 대승기신론소, 우파니샤드
- 정병조 박사의 중관철학, 유식철학, 육조단경, 화엄일승법계도
- 교양강좌로 도덕경, 분석심리학, 실존철학 등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출석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본 학당의 통신강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본 학당에서 개설하는 상설불교개론 강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13:30 ~ 16:30까지 3개월 코스)

95년도 신규개설강좌
이기영 박사의 <전등록>
<브리하드아라냐가 우파니샤드>
양형진 교수의 <불교와 물리학>